

한중경제포럼

제15-02호 2015년 05월 12일

2015년 중국경제 형세 및 정책전망

2015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5년 중국경제 형세 및 정책전망
2. 일 시 : 2015. 3. 25(수) 16:00~18:00
3. 발표자 : NDRC 경제연구소 승리(宋立) 부소장

1. 중국 거시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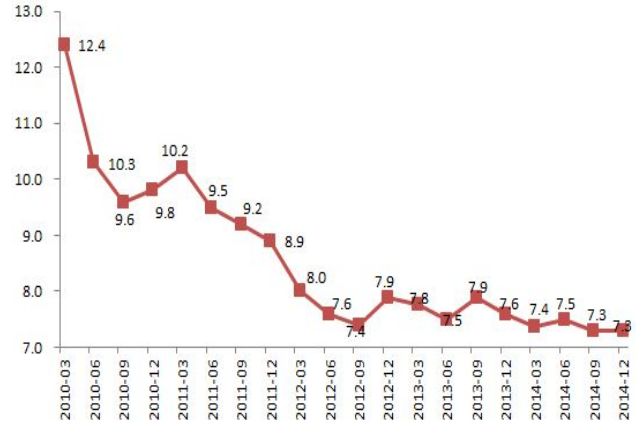
가. 경제성장률의 하락세 지속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연간 GDP성장률과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연간 GDP성장률은 2012년에 7.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7%대를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GDP성장률은 2014년 4분기 7.3%로 나타났다.

그림1. GDP성장률(%)



그림2. 분기별 GDP성장률(%)



나. 주요경제지표의 하락

□ 중국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고정자산투자증가율 하락, 해외수요 부진, 소비증가율 하락, 공업 부가가치증가율 둔화임.

-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2월 13.9%를 기록함.
 -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33.2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24.64%)과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비중 순으로 높음.
 - 최근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인 제조업의 기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3. 고정자산투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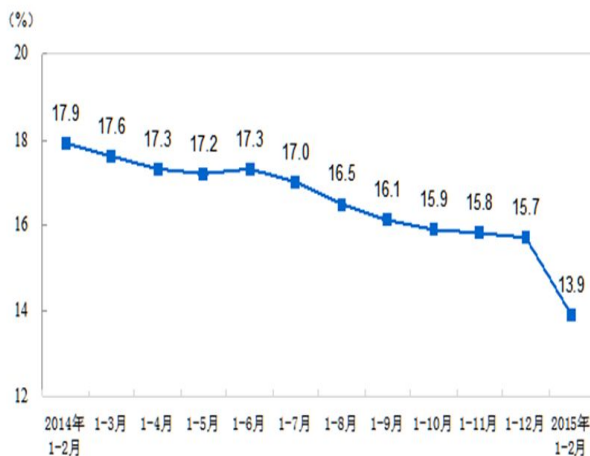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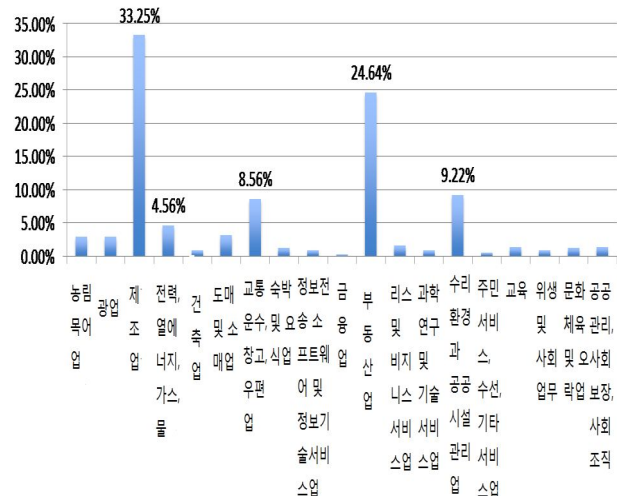


그림3. 업종별 투자비중



- 해외수요(수출입) 증가율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임.
-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업 부가가치증가율이 둔화됨.
-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4년 7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출하가격 중 생산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소비재 가격은 최근 다소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핵심물가지수(식품과 에너지가격)와 도매물가지수(WPI)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15년 2월 49.9%를 기록했으며, 비제조업 경영활동지수¹⁾는 2015년 1월과 2월에 각각 53.7%와 53.9%로 나타남.

그림4. 생산자 물가지수(P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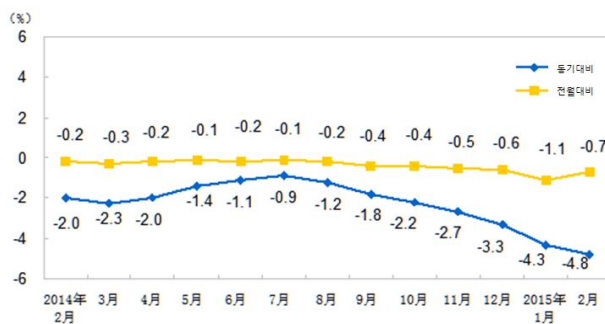


그림5. 소비자물가지수(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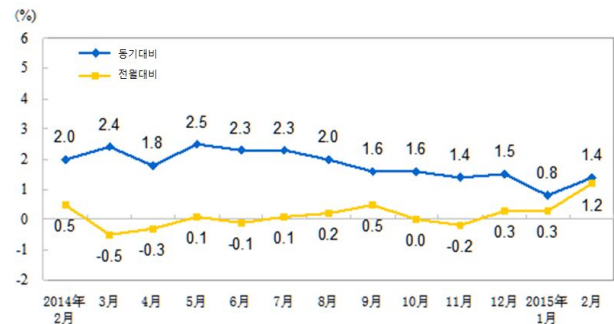


그림6. 제조업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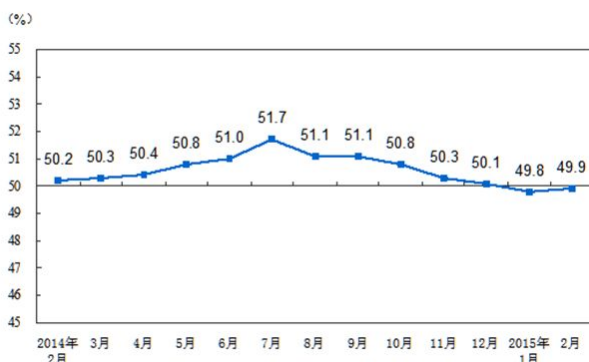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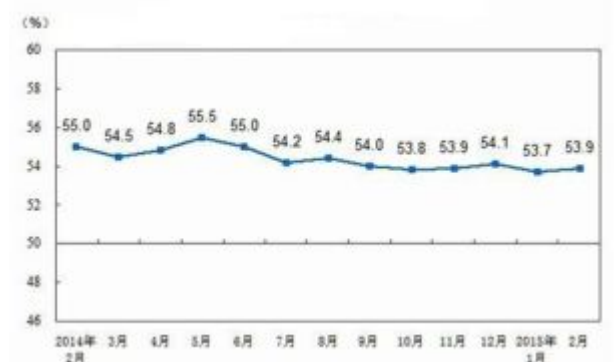


그림7. 비제조업 경영활동지수



1) 비제조업지수는 경영활동지수, 가격지불, 신규주문, 수주잔고, 공급자납품, 재고변화, 재고신뢰, 고용, 수출주문,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활동지수를 비제조업지수의 대표지수로 간주함.

2. 2015년 중국경제 현황 및 전망

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압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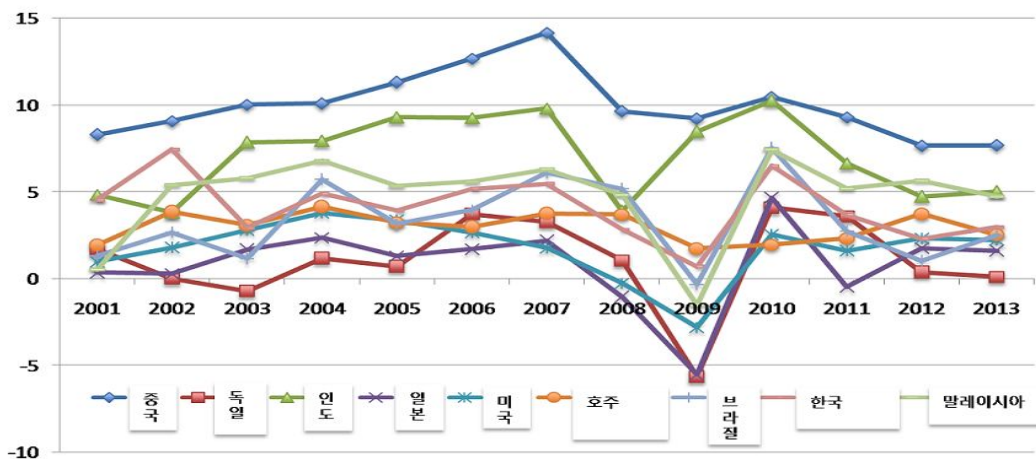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주기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의해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여전히 회복중이므로 주기적 변화에 의해 경제성장률 둔화는 보편적인 현상임.
- 현재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경제성장 단계의 필연적 추세임.
 - 2015년 3월 21~23일에 개최된 DRC 발전포럼에서 DRC 류스진(劉世錦) 주임과 북경대 린이푸(林毅夫)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발표함.
 - 북경대 린이푸 교수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압력의 증가요인은 세계경제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주기적 변화에 속한다고 언급하고, 2020년까지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8%로 전망함.
 - DRC 류스진 주임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0년까지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6.5%~6.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주요국의 성장률 변화 추이와 일치함.

-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세계 주요국은 모두 V자형 경기회복을 경험하였지만, 회복 후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남.
 - 인도는 성장률 회복 후 큰 폭의 2차 하락이 나타났고, 미국은 2차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8. 주요국가의 성장률 변화추이



□ 중국 경제는 이미 성장을 감속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며, 기존에 고속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 중 90%는 급격한 성장률 감속현상을 보인바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2011~12)가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구매력평가기준, 1990년 불변가격)인 고성장 국가 36개 중 34개 국가에서 급격한 성장률 감속현상이 나타났음.
 - 34개 국가의 하락 전 평균 경제성장률은 6.5%였으며, 하락 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0.2%로 나타나 평균 6.3%p 하락함.
- 중국 경제는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기는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결정될 것임.

□ 일반적으로 경제는 고속성장 후 계단형 또는 파도형 궤적(軌迹)을 보이며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감속궤적에 따라 계단형 또는 파도형으로 구분되며, 1인당 GDP가 5,500달러(구매력평가기준, 1990년 불변가격)일 경우는 계단형, 1인당 GDP 6,500달러(구매력평가기준, 1990년 불변가격)일 경우 파도형 감속을 보임.
 - 경제성장률의 감소폭은 계단형의 경우 약 7%p, 파도형의 경우 약 5%p 미만으로 나타남.
- 계단형 감속을 보인 국가들은 2차 산업비중, 수출비중, 에너지 순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 독일, 대만임.
 - 일본의 경우 두 차례 나타난 성장률 감속은 모두 정책실수로 초래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석유 위기(1973년)와 통일(1975년)의 영향으로 두 차례 계단형 감속이 나타났음.
 - 대만의 경우 민주화 운동이 있던 시기(1989년)에 성장률 감속이 나타났음.
- 파도형 감속을 보인 국가로는 미국, 영국, 한국이 있음.

□ 중국경제의 경우 이중 이원화구조를 보이고 있어 파도형 감속이 예상됨.

- 중국 경제의 ‘이중 이원화구조’는 연해와 내륙, 도시와 농촌의 경제발전 차이가 상이한 경제구조를 뜻하는 것이며,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의 파도형 감속이 예상됨.
- 특히 투자규모와 소비규모의 차이가 경제발전차의 주요 원인임.
 - 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해와 내륙간 투자규모차이가 컸으나, 최근에는 연해와 내륙 모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의 경우 여전히 도·농간 소비규모와 발전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나.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 중국경제는 공급요인으로 변화로 향후 10년간 2~3%p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생산인구감소와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축률의 감소 및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임.
- 생산함수를 통해 추산할 경우 2011~2020년간 경제성장률은 2000~2010년보다 2.9%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중국경제가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현저하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을 의미함.

□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주기적인 변화이자 구조적 변화이며, 정부 정책의 시행 결과임.

- 자원제약과 외부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 7%대로 예상됨.
- 자원제약과 외부수요를 고려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5.6%로 전망됨.
-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 향후 경제동향 결정 요인

□ (단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穩健) 통화정책이 중국경제의 방향을 결정함.

- 2015년도에 들어서 이미 2차례의 금리인하와 기준율 인하를 추진함.

□ (중기)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가 관건임.

- 미국, 유럽 등 국가의 경제성장이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외부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980년대의 저원가 경제변영의 재현 가능성도 존재함.
 - 미국은 1973~1975년 석유위기 후 1980년대 새로운 경제성장 주기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 주기에 진입하였음.

- 향후 5~8년후 미국 경제는 1980년대보다 다소 완화된 경제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개혁보너스(紅利)가 경제발전에 주요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 18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 개혁보너스를 통해 내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 기존에 출시된 각종 개혁보너스는 2015년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과거 경험을 보면 개혁정책이 발표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양상이 나타났음.
 - 2015년도에는 개혁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0.4~0.5%로 예상됨.

3. 2015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가. 거시경제정책 기조

□ 2015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면적인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음.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보다는 중속 성장기조 유지와 경제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성장속도는 조정하지만 성장세는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예측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임.

□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

- 중국경제 상황은 적당하게 완화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국의 여러 금융체제는 통화정책 역할을 제약하고 있음.
- 중국의 M2/GDP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낮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하며, 인도나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임.

□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중국의 재정적자는 3% 수준으로 우려할 수치는 아니며, 재정상황이 건전하고 수요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
 - 중국의 정부채무는 국제 비교시 낮은 수준이며, 그림자 금융을 감안해도 리스크가 낮은 수준임.
- 정부와 민간 합계 채무율은 세계 중등 수준이며, 총 저축률은 높은 편임.

나. 정책 전망

□ 2015년 중국경제는 각종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작은 정부와 권한 이양’ 방침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경제는 이미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중진국 함정’ 탈출 및 발전을 통한 현대화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경제는 개혁심화와 경제구조 조정을 떠나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 민생 안정 및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의료보험, 의료·위생, 문화·사회혁신 등을 중점사안으로 개혁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경제의 외부환경은 여전히 위험요인 존재함.

- 현재 세계경제는 회복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국은 여전히 발전 여지가 크고 발전 가능성도 존재함.
 - 경기하행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경제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중국경제는 ‘이중 목표’, ‘이중 결합’, ‘이중 동력’ 설정하여 경제성장속도는 조정하지만 성장세는 유지하여 경제구조 고도화를 실현할 것임.

- (이중 목표) 경제성장의 속도(중고속 성장 유지)와 성장의 질(중고급 수준)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함.

- (이중 결합) 성장을 위한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구조를 조정할 것임.
- (이중동력) 대중창업, 만중혁신(万衆創新)과 공공재, 공공서비스 증가를 경제성장의 이중동력(双引擎)으로 형성할 것임.
 - 창업을 장려하고,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관리혁신, 발전모델혁신, 체제혁신 등의 각종혁신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경제업무보고에서는 2015년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7% 내외, 소비자 물가상승률 3% 내외, 도시 신규 고용창출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록실업률 4.5% 이내, 수출입 증가율 6% 내외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경제가 장기간 경제성장률을 7%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중국경제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임.
- 중국 경제는 고용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인 7%대 성장유지가 필요함.
 -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서비스업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소미기업(小微企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임.
- 그 외 국제수지의 기본 균형 실현,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속도 일치, 에너지소비강도의 감소 목표치는 3.1% 이상, 주요 오염물 배출 지속적으로 감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2015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예상됨.

- 중국정부는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미시경제 활성화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공급혁신을 통해 수요확대를 견인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할 것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를 통해 재정 적자율을 향상시키고 채권관리를 엄격히 할 것임.
 - 2015년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700억 위안 증가²⁾한 1조 6,200만 위안으로 예상되며, 적자율은 2014년 2.1%에서 2.3%로 향상시킬 예정임.
 -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융자 제도를 정비하고, 채권을 적절히 발급할 것임.
 - 잠재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추가 자금조달을 보장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고도화할 것임.

2) 중앙 재정적자는 1,700억 위안 증가한 1조 1,200억 위안, 지방 재정적자는 1,000억 위안 증가한 5,000억 위안임.

- 구조적 감세와 자본조달비용 감소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특히 소미기업(小微企業)의 부담을 경감할 것임.
-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신축성 확보할 것임.
 - 광의통화(M2)증가율이 12%가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의 수요에 따라 다소 높을 가능성도 존재함.
 - 대출 심사관리 강화 및 개선, 공개시장조작, 금리, 기준율, 재대출 등 통화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의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할 것임.
 - 자금회전의 가속화와 대출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직접융자의 비중 증가 및 사회 융자비용을 감소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실물경제에 유입되도록 촉진할 것임.

□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임.

- 중국 경제는 환경 제약이 가중되고 요소비용이 상승하는 등 요인으로 기존 성장방식의 모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기존 성장모델의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해야 함.
- R&D 투입의 증가,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 브랜드 구축 강화,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중과 수준 향상하는 등 성장속에서 고도화하고 고도화를 통해 성장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

□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인 대중창업과 만중혁신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대중창업, 만중혁신(万衆創新)의 추진은 고용창출 확대와 주민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수직이동(縱向流動)과 공평 정의에 유리함.
 -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고, 여러 분야의 개방화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사회에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공평한 경쟁을 위해 플랫폼 제공할 것임.

□ 가격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가격 통제 대상(담배, 철도 운송 및 화물가격, 우편료 등)에 대한 가격개혁을 가속화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할 것임.
- 실물경제 중점으로 금융개혁을 촉진하고,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개혁을 심화할 것임.
- 과학기술, 교육, 문화, 의약위생, 양로보험, 사업기관, 주택공적금 등 분야의 개혁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할 것임.
- 전략적 신흥산업을 확대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체제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추진할 예정임.

□ 소득분배 개혁 및 새로운 소비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소비지출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

- 양로 · 환경 ·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 퇴직자의 양로연금 수령액을 10% 추가 인상하고 급여체계 및 양로보험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장려 정책 구체화, 의료보험 제도 완비, 환경관리 강화 정책 시행 등 민생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할 것임.

- 창업과 고용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사회보장과 주민소득 증가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또한 기본 의료위생 제도를 가속화 완비하고,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감소하는 등 환경 관리 관련 정책의 시행을 강화하는 등 민생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할 예정임.

□ 법치국가(依法治国)의 실현을 위해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하고, 사치와 부패를 단속 척결하여 반부패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임.

- 헌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依法行政)하며, 정부업무를 법치범위에 전면 포함하여, 정부의 이행력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가관리 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 촉진함.
- 혁신관리를 견지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정부효율 향상에 노력하며, 주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확실히 이행할 예정임.

<질의·응답>

질문 1.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개혁이 본격화 된 것이 3년 정도임. 개혁은 보너스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과잉투자 억제, 반부패로 인한 소비심리 억제 등 경제성장률을 제약하기도 함. 물론 장기적으로는 개혁에 따른 보너스 효과가 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보너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따라서 2015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혁보너스의 기여도가 과연 0.5%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의구심이 생김. 이에 대해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답변 1.

중국의 새 지도부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366건의 개혁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 80건의 개혁이 추진되었음. 경제성장률에 대한 0.5%의 기여도는 상술한 80건의 개혁보너스 효과를 의미하는 것임. 이에 반부패 등 영향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반부패를 통해 사치품의 소비가 억제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2014년에는 소비가 지나치게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2015년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2015년에는 개혁보너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기업등록 제의 완화에 힘입어 2014년도에 새로 등록한 기업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민간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로 2015년에 더 많은 민간은행이 새로이 설립될 것이며, 중소기업과 중서부지역 기업의 융자난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로 이러한 측면에서 개혁보너스를 예측한 것임. 과잉투자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R&D 투입 증가,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축 산업 발전, 새로운 산업 육성 등 조치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효과가 기대됨.

질문 2

전인대 공작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조업 2025’와 ‘인터넷+’ 계획을 언급하였는데 언제쯤 출시될 것인가? 어느 기관이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제정하는가?

답변 2

동 계획은 아직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담당부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담당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음. NDRC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잘 파악되지 못한 실정임.

질문 3

중국은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 등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7% 내외의 경제성장률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그럼 향후 5년간 중국정부는 7% 내외의 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재정, 금융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가?

답변 3

개인적으로 볼 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장기적으로 7%의 경제성장률은 혁신주도형 경제와 구조조정, 도시화 추진, 소비확대와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장기적으로 발전정책, 혁신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확보해야 함. 필요한 경우 긴축된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음.

질문 4

최근 중국인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1~2월의 물가지수는 1.7% 내외라고 하였음. 2015년도의 물가지수를 3% 내외라고 하셨는데 물가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만약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변 4

중국정부가 설정한 3% 목표치는 물가지수를 3%이내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① 경제성장률에 따른 물가지수 상승률(2% 내외로 예상), ② 가격개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2015년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2.5% 내외로 예상됨.

디플레이션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디플레이션은 생산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침. 현재 디플레이션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소극적인 영향은 바로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임. 특히 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나 개조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와 동시에 자산시장의 버블을 증대시킬 수도 있음. 즉 실물경제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수 있음. 따라서 디플레이션 추세를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디플레이션 형세가 다소 완화됨. 물가지수가 1%대이하로 하락될 경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1%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